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2013 No.2  
CHALLENGE



#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충주**



3월 24일 (일) 14:00

Next Home Match

광주FCvs수원FC 4월 7일 (일) 14:00



[www.gwangju-fc.com](http://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_fc



/gfc0

## Photo Gallery

2013/03/16 (토) 14:00 상주전





## 광주FC 거리홍보 인기만점



광주 남구 노래자랑서 지역민과 축구사랑 캠페인 오는 24일 14시 광주W서 충주 상대 첫 승 도전

프로축구 광주FC가 찾아가는 거리홍보에서 인기를 실감했다. 광주는 20일 낮 12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광주 남구 노래동에서 열린 모 노래자랑 프로그램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홍보를 펼쳤다. 이번 거리홍보는 광주가 시민구단인 만큼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홍보하고 자발적인 홈경기 관중을 유치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의 마스코트인 화니·보니(일명 꼬꼬)는 과감한 댄스실력(?)을 선보이며 시민들을 불러 모으고 다트 돌리기, 프리스타일 풋볼 공연 등으로 흥을 돋웠다. 또 사인볼, 손수건 등을 선물로 증정해 구단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광주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200여명의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는 등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김금례 (68)씨는 "손수 들이 축구를 좋아해 지난 주 홈 개막전에 함께 갔는데 경기에 저 너무 아쉬웠다"며 "광주월드컵경기장에 관중도 많이 오고 선수들도 이겨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광주 박해구 단장은 "올 시즌 광주의 빠른 패스축구는 90분 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박진감이 넘친다"며 "찾아가는 거리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기를 홍보하고 경기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축구로 하나 되는 광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지난 홈 개막전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광주는 팀을 재정비해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챌린지 2라운드 충주 험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3.16(토)	14:00	광주	상주
2013.03.24(일)	14:00	광주	충주
2013.04.07(일)	14:00	광주	수원FC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청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청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청

Sponsor		
우미건설	Joma	KJB 광주은행
광주월드컵점	그래미	롯데시네마
SBS	TS	지리산산상
모아레포츠타운(주)	광주수원병원	청연한방병원
카포스포초	중흥 골드스파크&리조트	금호패밀리랜드
금호리조트	광주광역시교육청	밝은안과21

# Review

## 찬스가 있었기에 더 아쉬웠던 상주전



K리그 챌린지가 개막하기 전부터 상주상무가 강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축구팬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주말에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팀이었다. 하지만 광주 역시 그런 상대를 맞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찬스를 경기 중 여러 차례 만들었기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다.

먼저,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 시작부터 공세적으로 나서는 상주에 광주 수비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 후퇴하며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줬고 그런 흐름 속에 상주 이근호에게 일격을 당했다. 이후 광주는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고 본래의 공격 템포를 찾아가며 상주의 문전을 서서히 위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 만든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특히, 후반 초반 김은선이 문전 혼전 중 이 날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GK 김호준의 육탄방어에 막혔다. 골로 연결되었다라면 충분히 역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었기에 광주로선 정말 아쉬운 부분.

찬스를 놓친 광주는 측면에서 다시 이근호에게 반격을 허용했고 그것이 빌미가 돼 교체 투입된 김동찬에게 두 번째 실점을 당했다. 그리고 몇 분 뒤, 이번엔 수비수 박병주가 상주 하태균과의 볼 경합 도중 파울성 동작에 쓰러졌으나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결국 이근호에게 손쉬운 찬스를 허용하며 세 번째 실점을 당했다.

그래도 광주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종료 직전까지 상주 문전에서 두 차례 정도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골문을 외면하며 시즌 첫 경기에서 패배의 쓴잔을 들어야 했다.

# Preview

## 광주, 충주험멜전 승리로 다시 시작한다!



비록 리그 내 최대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당한 패배의 충격은 크지만 광주의 꿈인 연말 K리그 클래식으로의 승격을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 해야 한다. 광주FC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안방에서 충주험멜을 상대로 2013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여범규 감독 이하 선수단은 반드시 충주를 잡고 홈팬들에게 시즌 첫 승을 안기겠다는 각오.

일단 첫 경기에서 과제로 떠오른 상대 문전에서의 마무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기대를 모았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카시오는 불운하게도 지난 상주와의 경기 도중 머리를 다쳐 45분 만에 교체됐으니 충주전에선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카시오 대신 후반전에 투입된 루시오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며 부활을 예고한 것은 희망적. 덧붙여 안동혁, 김은선, 김수범 등 팀 내 해결능력이 있는 자원들도 보다 충주 문전에서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중원은 비록 지난 겨울 이승기 등 핵심 선수들 몇몇이 빠져나가 공백이 생긴 것치고는 상주전에서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상주전 전반 중반 이후부터 후반 10여분까지 숏패스와 조직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대 문전을 강하게 압박하던 모습은 겨우내 여범규 감독이 강조했던 '보다 세밀한 축구'가 서서히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첫 경기 3실점으로 저하된 전체 수비라인의 사기를 충주전을 앞두고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남은 시간 광주 코칭스태프에게 주어진 과제다.



## 패기가 돋보이지만 분명한 허점이 있는 충주험멜



상주상무나 경찰청 같은 팀들과는 달리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충주험멜의 전력이 지난 1라운드 경찰청과의 홈경기를 통해 확실히 드러났다. K리그 챌린지 개막 직전의 미디어데이에서 밝힌 이재철 감독의 자신감처럼 충주는 결코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과거 내셔널리그 소속 당시 충주험멜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더 빨라지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이번 시즌 달라진 점. 경찰청과의 경기에서 초반부터 강한 프레싱을 바탕으로 끊어낸 볼을 단번에 좌-우 측면으로 벌려 깊은 곳에서의 크로스 시도나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는 패턴 등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뒤흔들었다.

반면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선수들이 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충주험멜의 불안 요소. 경찰청전에서 이른 시간의 선취골에 들뜬 선수들이 냉정함을 잃고 서두르면서 3선의 간격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노련한 상대 선수들이 이를 역이용할 빌미를 제공했다.



충주 공격의 시발점이면서 마무리 역할도 겸임하는 핵심적인 선수다. 기술이 있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동료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번뜩이는 센스를 발휘하며 볼을 킁해내는 능력도 있어 상대하는 입장에선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 Focus

## No.99 카시오 “첫 경기는 액땀이었을 뿐”



흔히 '믿고 쓴다'는 브라질산 골잡이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을까? 카시오가 얘기치 못한 부상으로 출혈이 심해 한국무대 데뷔전을 고작 전반전 45분으로 마무리 한 것에 대해 광주 축구팬들은 다소 의기소침해졌다. 더구나 이 날 광주는 상주 문전에서 수차례 좋은 찬스를 잡고도 결정력 부족으로 영패를 당했기에 해결사에 대한 팬들의 갈증은 더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액땀'이란 우리식 표현을 아는지 카시오는 축구화 끈을 고쳐 매며 24일 일요일 홈에서 열리는 충주험멜과의 2차전 출전을 목표로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 비록 첫 경기 플레이 타임은 45분에 그쳤지만 그라운드에서 있는 동안만큼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주변 동료들과의 매끄러운 연계를 보여줬고, 탁월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투쟁력까지 선보였다. 이렇게 첫 경기를 통해 K리그 챌린지와 전체적인 한국축구의 스타일을 몸으로 익힌 카시오는 2라운드에서 더욱 위력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카시오가 오는 충주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1라운드 상주전에서 부상으로 빠진 자신의 데타로 들어간 팀 동료이자 선의의 경쟁자 루시오가 예상보다 양호한 몸 상태와 좋은 경기력으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 "오로지 한국 땅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광주에 온 카시오가 팀 내 주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충주전에서도 자신의 시즌 첫 골로 팀 승리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